

# 폭력에 의한 직업성 상해

이 경 종

1988년 Journal of Occupation 에 Thomas H 등은 직장에서의 폭력에 대한 글을 게재하였다.

미국에서는 최근 폭력에 대한 문제가 점점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작업장에서의 폭력은 상대적으로 무시되어 왔다. 매년 미국에서 800-1,400 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이 작업장에서 살해되고 있고 사망하지 않은 직업성 상해는 확실히 파악할 수도 없는 정도이다.

위험성이 높은 직업, 산업장과 희생자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정보는 예방적 차원에서 이러한 상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 Ohio 주의 근로자들의 보상청구(Workers' Compensation Claims, WCC) 자료에 의하여 이러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였다.

여기서 직업성 폭력범죄(occupational violent crime)에 의한 상해는 근무중 고의적인 폭력, 강간, 살해로 정의된다. 1983년부터 1985년에 걸친 3년간의 Ohio 주의 컴퓨터 입력 자료를 분석하여 259명의 고의적인 폭력범죄에 의한 피해자를 찾아내었다. 259명의 폭력범죄 피해자들의 평균 연령은 31세였고 16~63세의 범위를 보였다. 10세 단위로 연령을 세분하였을 때 25~34세에서 피해자수가 가장 많았고 45~54세가 가장 적었다. 남자가 75%를 점유하고 있었다. 폭력범죄의 55%는 오후 7

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발생되었다. 총기가 가장 흔히 이용되었으며(73%) 그중 권총이 85%를 차지하고 있었다. 1983년에 100명, 1984년에 94명, 1985년에 65명의 피해자가 있었는데 월별, 계절별 경향은 관찰되지 않았다. 259명의 피해자중 74%인 192명이 폭행을 당하였고, 19%인 50명이 살해되었으며 17명(7%)이 강간을 당하였다.

이 기간동안 3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었던 직장을 9종으로 분류하였을 때, 경찰관과 보안관의 직업적 상해가 가장 높아 Ohio 주 근로자 전체에 비하여 37배나 되었다. 주유소 근로자들이 경찰관 다음으로 높아 13배,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자(8배), 호텔 또는 모텔 근로자, 사설금고 근로자 순으로 높았다.

경찰관은 살해도 가장 많이 당하여 Ohio 주의 전체 근로자에 비하여 22.9배에 이르고 있었고 호텔과 모텔 근로자들도 21.9배나 되었다.

인스턴트식품점에서 5명, 부동산 매매업에서 3명의 강간 피해자가 발견되었고, 호텔과 모텔, 식품점, 사설금고 근로자가 각각 1명의 강간 피해자가 있었다.

경찰관과 사설금고 근로자가 상해에 비하여는 가장 낮은 피살율을 보이고 있으며(각각 11%, 14%), 호텔과 모텔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폭력범죄에 의한 상해중 50%는 살해이었다.

저자들은 WCC의 자료가 사망진단서에 있는 직업성 피살중 61%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며 사망진단서에 있는 것이 WCC에 빠진 이유로 피살자가 대부분 자영업자라는 것을 들고 있다.

경찰관을 제외한 사설금고 근로자와 부동산 매매업자의 상해율이 높은 것은 현금을 취급하는 공통점이 있고 주유소와 인스턴트 식품점은 절도가 많은 곳이라 하였다. 저자들은 절도에 의한 상해가 많으므로 절도에 대한 대책이 우선되어야 하며 근로자들에게 상해를 당하지 않는 법을 교육시키고 경찰도 이러한 절도 방지에 힘을 기울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저자들은 폭력범죄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각 직장은 서로 다른 상해 위험률을 가진다고 하며, 고 위험률의 직업을 확인하고 그곳의 근로자들에게 위험한 폭력에 대처하는 방안을 교육, 훈련시켜서 피할 수 있는 살상을 예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